쉼 터

1900의 전설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언젠가 〈1900의 전설(Legend of 1900)〉이라는 비디오 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새 천년과 새 세기가 시작되는 2001년을 맞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이기에 잠시 줄거리를 소개고자 한다.

트럼펫을 든 한 노인이 뉴욕의 어느 악기점을 찾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자신이 오랫동안 연주하던 트럼펫을 악기상에 헐 값으로 팔기 위해 악기점에 들른 그 노인은 값을 흥정하는 동안, 한 켠에서 들려오는 귀에 익은 피아노 연주곡과 함께 이 곡을 담은 오래된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부서진 조각을 이어 붙인 그 오래된 레코드판을 입수하게 된 동기를 악기상에게 물으면서, 노인의 회상 형식으로 이 레코드판에 얽힌 1900의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19세기말인 1899년 12월 31일, 유럽과 미국의 뉴욕을 오가는 대형 정기연락선에서 사람들은 1월 1일 새해, 그것도 세기가 바뀌는 1900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흥분 속에 들떠 있다. 수많은 승객들의 흥분과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관실 안에서는 거대한 증기선을 움직이기 위해 기관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1900년 1월 1일 드디어 뉴욕에 도착한 승객들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며 환호의 도가니 속에 하나 둘 하선하고, 배 속에 버려진 아기가 클로즈 업 된다. 기관실에서 조연급되는 흑인 기관사는 이 아기를 발견한 뒤 자신의 아기처럼 돌보게 된다. 생활고 때문에, 자신의 딸을 돌보지 못하고 배와 함께 대서양을 건너며 생활해 온 흑인 기관사는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인 양 정성껏 양육한다. 흑인 기관사는 누가 부모인지 알 수 없는 채 뱃 속에 버려진 이 아기에게, 세기가 바뀐 1900년 1월 1일을 기념하여 〈1900〉(NINETEEN HUNDRED)이란 이름을 붙여준다. 1900은 대서양을 오가는 배에서 흑인 기관사를 아버지 삼아 자라게 된다. 1900의 어린 시절은 배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아노가 유일한 친구였다. 1900은 승객들이 부르는 노래의 멜로디만 들으면 즉흥적으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다. 음악적 수업을 일절 받지 않았어도 1900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피아노 반주는 그 자체로 훌륭한 음악이었다. 언젠가부터 이 호화여객선 악단에서 함께 일하던 그 트럼펫 연주자는 흑인 기관사와 1900과 친밀한 사이가 된다.

흑인 기관사는 1900이 소년으로 성장하자,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이 흑인 기관사는 우연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피아노 이외에는 트럼펫 연주자가 유일한 친구가 되어버린 1900은 흑인 기관사에게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트럼펫 연주자에게 자주 들려주는데, 그 중에서 〈바다의 목소리는 바다 밖에서 들어야 한다. 바다 안에서 바다의 목소리는 결코 들을 수 없다〉라는 말을 건네준다.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1900의 피아노 실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승객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을 전달되면서 그의 피아노 실력은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며 재즈라고 하는 새로운 음악장르를 개척한 뉴올리안즈의 한 음악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1900의 소문을 들은 이 재즈음악가는 자존심이 상해 그와 실력을 겨루기 위해 직접 승선하여 피아노연주 실력을 겨루게 된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손놀림으로 연주하는 재즈음악가에게 두 번이나 주눅이 들었지만, 1900은 혼신의 힘으로 피아노를 연주하여 세 번째는 그

재즈음악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황홀한 연주를 하여 승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는다.

이 소문을 들은 레코드사에서 그의 연주를 녹음하여 세상에 보급하려고 하였다. 몇 번이나 거절하였지만, 트럼펫 연주자의 설득으로 겨우 승낙하고 레코딩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날은 비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이었다. 피아노 건반 앞에 앉은 그에게 작은 창을 통해 한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창을 통해 비치는 소녀의 아른거리는 모습을 바라 보면서 1900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해 내었다. 레코딩을 하는 관계자 모두가 감동할 정도였다. 레코딩이 끝나자 마자 레코딩을 한, 판 주형물을 들고 1900은 갑판 위로 튀어 나갔다. 소녀에게 다가간 1900은 그 소녀로부터 어릴 때부터 〈바다의 목소리는 바다 밖에서 들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듣는다. 하선한 소녀를 사람들 틈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청년 1900은 급하게 옷을 챙겨입고, 부두에 정박한 배에서 내려 뭍으로 나가 보려고 하지만, 계단을 다 내려 가지 못하고 다시 승선하게 된다. 평생을 바다를 오가면서 배에서만 살았으므로 뭍이란 세상이 두렵기도 했거니와, 출생신고가 없었으니 호적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세상 속에 정체가 없는 자신의 존재에 새삼스럽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1900은 정신없이 레코딩한 주형판을 던져 깨어버린다.

세월은 흘러 과학기술의 발달로 증기선의 존재가 필요없게 되자, 트럼펫 연주자도 배에서 내려 일터를 찾아 다른 데로 떠나 버리고, 찬란했던 과거를 가진 증기선은 폭파되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뭍에서 이곳 저곳 떠돌던 그 트럼펫 연주자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 인부들이 오랫동안 수색했지만 배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주장을 물리치고, 배 안에 반드시 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폭파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게 된다. 며칠간 배 안을 뒤지던 트럼펫 연주자는 드디어 먼지에 뒤덮인 낡은 피아노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1900은 찾지를 못한다. 뉴욕 악기상으로부터 받은 레코드판을 수동 축음기를 이용하여 돌아가게 하자 낡은 배 가득히 아름다운 멜로디-1900의 혼이 들어 있던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트럼펫 연주자는 배 어디에선가 숨어 지내던 1900과 재회를 하게 된다. 소녀를 만나지 못하는 1900은 자신의 피아노 연주곡이 담긴 레코드 판 주형물을 던져서 부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피아노 건반 속에 숨어 있던 이 레코드판의 주형물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그 뉴욕의 악기상에게까지 흘러갔을 것이다. 뭍으로 함께 나가기를 권유하는 트럼펫 연주자의 청을 물리 친 1900의 존재는 폭파되는 그 배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트럼펫 연주자의 회상을 조용히 듣고 있었던 뉴욕의 악기상은 자신이 헐값을 주고 구입했던 중고 트럼펫을 그 연주자에게 돌려주게 되고 연주자가 그 악기점을 나서며 총총히 사라지는 모습이 패이드 아웃(fade out)되면서 영화는 끝난다.

정체없는 인간의 존재란?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호적도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1900의 존재처럼, 사회에서 동떨어져 정체성을 잃었을 때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전쟁 중에 정글이나 무인도 속에 홀로 남아 수십년간 생활하다가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문명사회로 돌아왔을 때의 패잔병의 느낌. 삼풍백화점 사고로 붕괴된 건물 더미에서 수십일간의 사투 끝에 생존되어 구출된 분들의 느낌. 아마존의 원시림 속에 살다가 복잡한 문명사회를 우연히 만난 부시맨의 느낌, 등등, 사회와 동떨어져 사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회 속에서 관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苦)일 때도 있겠지만, 그 것 자체도 산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일테니, 역시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소중한 보물이 아닐 수 없는 가 보다. 기왕이면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베푸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올해, 우리 고분자학회 회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혜 속에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며 사는 풍요한 삶을 살아간다면 회원들이 '더불어 사는' 학회 또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